

# 자생 수생식물 노랑꽃창포, 노랑어리연꽃, 달뿌리풀의 특성 및 이용기술

(4대강 생태복원용 자생식물 시리즈 3)



노랑꽃창포, 연못주변에 심어 민개기에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해준다



송정섭 | 이학박사

T.031-290-6214  
songjs105@korea.kr /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 1. 노랑꽃창포

5월 하순부터 피는 노란 꽃도 아름답지만 수질정화 능력도 탁월하다. 관상가치가 있고 일단 심으면 번식이 매우 용이해 많은 곳에서 수변식재용으로 쓰이고 있다. 냇가나 연못 등의 가장자리에 심는데, 뿌리부분이 잠기는 물속은 물론 물과 흙이 접하는 수변 공간을 쇠백로 같은 조류는 물론 다른 생물들의 서식처로 훌륭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환경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식물이다.

### ① 분류

노랑꽃창포는 붓꽃과 식물로 학명은 *Iris pseudoacorus*이다. 다 자랐을 때 키는 50~120cm이며, 꽃은 5월 중하순부터 핀다.

### ② 생태 및 형태 특성

연못이나 강가와 같은 습지나 수분이 충분한 곳에서 잘 자라며 추위도 강해 전국적으로 쓰인다. 굵은 뿌리가 땅속을 뚫으며 다년생으로 자란다. 줄기는 곧게 서서 자란다. 꽃은 노란색이다.

### ③ 이용 및 식재방법

추위에 강해 중부, 북부지역에서 얼마든지 식재할 수 있으나 건조나 염해에 약하므로 이런 곳의 식재는 피한다. 깊이 30cm 이내의 물속이나 수면에 붙여 심으며 햇볕은 잘 드는 곳이 좋다. 지하경(땅속줄기)을 잘라 번식한 포기를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④ 재배법

씨앗은 특별히 휴면성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며 번식이 잘 된다. 씨앗을 뿌려 싹이 나면 본 엽을 충분히 키워 포트에 옮겨 심는다. 단 기간에 성묘로 만들려면 땅속줄기를 2~3마디씩 붙여 잘라 포트에 심어 증식한다.

### 2. 노랑어리연꽃

연못에 노랑어리연꽃과 수련이 같이 식재되어 무방비 상태로 몇 년 지나게 되면 수련은 대부분 감소하고 노랑어리연꽃이 거의 전체를 점령해 버린다. 일단 정착하면 번식속도나 생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예기다. 노랑어리연꽃도 질소, 인으로 부영양화 된 수질 정화에 효과적이다.

#### ① 분류

용담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수초로서 학명은 *Nymphoides peltata* 영명은 yellow floating이다. 유사종으로 어리연꽃, 좀어리연꽃 등이 있으나 추위에 약한 편이며 전국 어디서든 생육이 강하고 잘 자라는 것은 노랑어리연꽃이다.

#### ② 생태 및 형태 특성

우리나라 각처의 연못이나 늪지에 흔히 자생한다. 꽃이 물위에서 피고 꽃이 진후에는 물속에서 씨앗이 익는다. 꽃은 한 여름에 노란색으로 피며 씨앗은 9~10월에 타원형으로 익는다. 납작한 씨앗은 날개가 달려 있어 이동성이 좋다.

#### ③ 이용 및 식재방법

노랑어리연꽃은 염해나 건조한 곳에서는 매우 약하다. 추위에는 웬만큼 잘 견디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식재할 수 있다. 흐르는 물보다는 연못처럼 정체되어 있는 공간에 적합하다. 물속에 포기 채 심는다. 지나치게 번성할 우려가 있는 곳은 포기를 용기에 담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 ④ 재배법

뿌리줄기는 물속에서 월동하며 여름철에 줄기형태로 빠르게 늘어난다. 포기를 나누거나 물속줄기를 2~3마디씩 붙여 잘라 포트에 심어 늘린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좋다.

### 3. 달뿌리풀

달뿌리풀은 종종 갈대와 혼동할

만큼 모양이 비슷하다. 다른 수생식물들과 달리 건조나 염해에도 조금 견디기 때문에 이용범위가 넓다. 대부분 수생식물처럼 수질정화 효과도 약간 있다. 갈대와 함께 흐르는 물이든 호수든 가리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널리 쓰인다.

#### ① 분류

갈대와 같은 벼과식물이다. 학명은 *Phragmites japonica*, 다 자랐을 때 키는 2~3m, 꽃은 8~9월에 핀다.

#### ② 생태 및 형태 특성

전국의 강가나 모래땅에 군락을 이뤄 자라는 다년초이다. 갈대와 달리 산간의 계곡에서 흔히 자생한다. 줄기는 지름 6mm로 길게 땅위에 뻗으며 마디마다 잎줄기가 위로 곧게 서며 위로 자란다. 잎은 어긋나며 자갈색의 꽃이 조밀하게 달려 핀다.

#### ③ 이용 및 식재방법

추위에 강하고 염해에도 웬만큼 견디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식재할 수 있다. 호수나 강을 중심으로 물가나 둔치에 식재하면 좋다. 둔치에 심을 경우 활착초기에 마르지 않도록 물관리가 중요하다.

#### ④ 재배법

포복하는 줄기의 마디마다 새로운 잎이 나오면서 새로운 포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 마디를 잘라 포트에 번식하면 된다.



노랑어리연꽃. 연못에 식재한 지 2~3년 후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



달뿌리풀. 자라는 곳이 적박하면 세력이 크게 번지지 않는다.



달뿌리풀. 냇가에 잘 정착되어 여름 개화기에 훌륭한 경관을 연출한다.



노랑어리연꽃. 흰색 꽃을 피우는 지라풀과 함께 혼생하고 있는 모습